지역 소식통

고창군 연말연시 공직 기강 확립 특별감찰 시행

고창군은 탄핵 시국 및 연말을 맞이해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품위손상 및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 '연말 공직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요 감찰 사항은 공무원 근무 태세 확립 여부, 공직자 품위 훼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 민원 혼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 유출 등 보안 위반 등이다.

특히 이번 감찰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합동 공직감찰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감찰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연말을 맞아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탄핵정국 및 연말연시 예방감찰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위메프오' 통해 크리스마스 할인 이벤트

정읍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며, 공공배달앱을 통해 주문 시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민선 8기 정읍시의 핵심 공약 사업인 위메프오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누적 주문건수 20만 7000여 건, 누적 매출액 51억 5000여 만원을 기록하며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에서는 소비자가 1만 5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이벤트 기간 중 1일 1회 사용 가능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전국 모범 지자체로 우뚝

2024년 한해 정책 · 복지 · 환경 등 전 분야서 정부 표창 · 수상

정읍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민원·지적 행정, 산림 관리, 복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산림 관리와 환경 보호 분야의 최우수 기관 선정, 장애인복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했다.

먼저 민원·지적 행정 분야에서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과 함께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하며 디지털 지적 전환과 맞춤형 민원 환경 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 공모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4억 2500만원을 확보, 효율적인 도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 관리 분야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전북자치도의 임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용출수 발생 구간에 담수시설을 설치하고, 습지 내 토양을 치환하며 나온 점토질 토양을 사면에 풀씨와 혼합시공함으로써 접착력과 발아력을 높여 훼손된 비탈면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산림청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노력과 산불 방지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 주관 숲가꾸기사업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887ha에 달하는 산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을 인정받았다.

정읍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민원·지적 행정, 산림 관리, 복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시 보건소와 중앙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 통합 돌봄 도시 모델은 2024년 아시아 혁신을 위한 건강노화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ICT와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인구소멸 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순환골재 재활용 정책을 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자원 순환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했고, 전북자치도가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여기에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사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면서 특별재정교부금 1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첨단 장비 활용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인정받았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촌진흥청 주관 ASTIS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과학적 데이터 활용을 선도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병해충 문제 해결 사례는 농업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4년 주민주도 마을 활성화 사업 큰 호응

참여 주민 100명 중 60여명 '매우 만족' 응답… 긍정적 변화 체감

부안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군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사업추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1%는 '주민 간 유대감과 소속감 강화' 등 긍정적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농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마을 환경개선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마을 평생교육과 도농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마을 자원을 활용한 축제 기획과 개최를 지원하는 '스토리가 있는 마을 축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추진했다.

이와 함께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 사무장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의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부안군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총 90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했고, 현장밀착형 사업 운영에 주력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주최로 '부안군 마을공동체 어울한마당'을 개최해 주민 약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 간 교류를 증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부안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더 많은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해 지원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곰소젓갈 활용 특화소스 개발

부안군, 보고회 개최… 한식소스 8종 등 총 11종

부안군은 18일 곰소젓갈발효센터에서 곰소젓갈을 활용한 특화소스 개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곰소젓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스 산업으로 진출을 위하여 추진된 이번 연구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업무 위탁을 체결하고 총 11종의 소스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소스는 한식소스 8종(5분 김치겉절이소스, 곰소멸치육수, 오디만능비빔장, 고기엔멜젓소스, 시원한 물회육수소스, 달콤한 진미채소스, 곰소젓갈양념, 서해꽃게어간장), 양식 1종(오디오리엔탈드레싱소스), 중식 1종(곰소바지락굴소스), 일식 1종(멸치우동소스)으로 총 11종의 소스에 곰소젓갈과 부안군의 농수산물이 사용되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부안군수를 비롯한, 연구기관, 젓갈협회, 젓갈제조업체 등 35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김형산센터장이 국내외 소스 시장 분석과 개발된 제품들의 선호도 조사결과, 레시피 및 원가분석 결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 후 참석자들은 개발된 소스를 활용한 음식을 시식하고 맛을 평가하였는데 곰소젓갈 소스는 그 특유의 깊은 맛과 풍미를 발산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부안군 곰소젓갈과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스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향후 개발된 소스의 상업화를 위하여 2025년 9월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생산공정과 표준 레시피 교육, 기술이전 교육, 창업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탄소중립 실현 청사진 공개

정읍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1%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계 부서 공무원,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용역을 맡아 수립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전환 등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는 주요 부문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1% 감축, 연간 726t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 과제와 재정 계획이 포함된 이번 기본계획은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더욱 보완될 예정이다. 이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환경부에 제출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서남부권 어울림문화공간' 기공식 개최

고창군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무장면 무장리 708-1일원)이 18일 오후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은 총사업비 85억원(기금 25억원, 군비 6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163.7㎡의 규모로 2026년 10월 완공예정이다.

특히 청소년특화시설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만화창작실, 공예작업실, 댄스연습실, 노래연습실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누리며 성장·지원하는 시설로, 지역의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 공간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